

# 유·해·예·감 올해는 이런 찻잔이 뜬다

찻잔에 따라 느껴지는 차의 맛도 달라진다.  
이제는 차를 담아내는 것 뿐 아니라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찻잔을 선택해야 한다.  
이에 올 겨울 새롭게 선보인 찻잔과 이 찻잔에 어울리는 차들을 한데 모아보았다.  
■ 구성·진행 / 박현희



오후 3시, 따뜻한 한잔의 차로 잠깐의 여유를 가져본다. 홍차와 잘 어울릴 것 같은 꽃잎이 그려진 찻잔. 진초록의 테두리가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. 4인조 세트에 4만 2천원. <유엘패밀리>

## 해바라기 찻잔

+ 블루 마운틴



칼로 잘라놓은 듯한 디자인이 아닌, 어딘가 자유로워 보이는 것이 특징. 화사한 해바라기 무늬와 남색 테두리는 핸드 페인팅한 것. 이 독특한 잔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한다고 하여 유명해진 블루마운틴과 잘 어울린다. 해바라기 찻잔은 포트와 세트도 장만할 수 있으며 가격은 2만원. <사랑방>

닉 + 디카페인 커피



석고와 도자기 소재를 섞어 만들어 강도가 뛰어난 커피잔. 두꺼운 찻잔이므로 커피가 잘 식지 않아 잠 안오는 밤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와 어울린다. 5인조 한 세트에 3만원. <정진>



### 곰돌이 찻잔 세트 + 에스프레소

쓰디 쓰면서도 진한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. 곰돌이 컵은 이런 에스프레소의 맛을 음미하기에 적당한 미니 사이즈이다. 곰돌이 컵, 받침, 스푼, 잔걸이가 한 세트 8,000원. <엄지>

### 엘레강스 잔

+ 헤이즐넛



마치 붓으로 그려 놓은 것 같은 무늬의 명암이 인상적이다. 기본 머그잔에서 약간의 변형을 준 것으로 어떤 커피와도 어울리지만 특히 향 커피로 유명한 헤이즐넛과 잘 어울린다. 포도, 딸기, 무화과 무늬가 있으며 개당 7,000원. <정진>

### 곰돌이 찻잔

+ 얼그레이 홍차



포터와 초록, 분홍색 무늬의 컵들을 세트로 만들 수 있는 귀여운 곰돌이 찻잔과 포트.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후 마시면 좋은 얼그레이 홍차와 잘 어울린다. 포트는 18,000천원, 잔은 개당 8,000원. <엄지>

### 곰돌이 머그잔 + 코코아



최근 동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. 깔끔한 아이보리색 바탕에 각각의 이름이 붙여진 꼬마곰들의 모습이 앙증맞다. 이는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코코아에 잘 맞는 찻잔이다. 3개 한 세트에 12,000원. <엄지>

### 마르커 머그

+ 스위스 모카 아몬드



딸기, 포도, 오렌지 3가지 무늬가 돌보이는 본차이나 머그잔. 잘 깨지지 않고 입체감이 화려함을 더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다. 이 잔에는 향이 구수하고 부드러운 스위스 모카 아몬드가 적격이다. 개당 가격은 7,000원으로 영국산이다. <정진>

### 굴곡 커피잔 + 브랜드 커피



손잡이와 전체적인 컵의 디자인이 독특한 3가지 색상의 커피잔.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이 잔에는 대중적인 브랜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. 5인조 한 세트에 3만원. <정진>